

아프리카 토지수탈(land grab)¹⁾ 논쟁 재점화

- 지난 4월 25일 Land Matrix 프로젝트²⁾이 발표한 〈개도국에서의 초국가적 농지거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세계 각국 정부 및 기업에 의해 매입되거나 장기 임차된 아프리카 토지의 면적은 약 3,427만 헥타르에 달함.³⁾
 - 같은 기간 전 세계적으로 거래된 토지면적의 48.8%가 아프리카 토지이며, 이는 아프리카 전체 농지의 약 5%에 해당하는 크기임.⁴⁾
 - 아프리카의 주요 임대국은 DR콩고, 에티오피아, 수단 등이었으며, 아프리카 토지의 주요 임차국·매입국은 중국, 인도, 미국 순이었음.
 - 매매된 아프리카 토지의 약 85%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요 재배작물은 자트로파, 옥수수, 팜유, 사탕수수, 채유실종 등의 상품작물 및 바이오에너지원 생산 작물임.

그림 1. 대륙별 토지거래 현황(면적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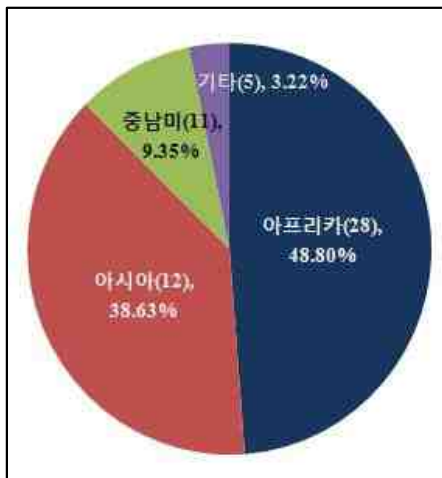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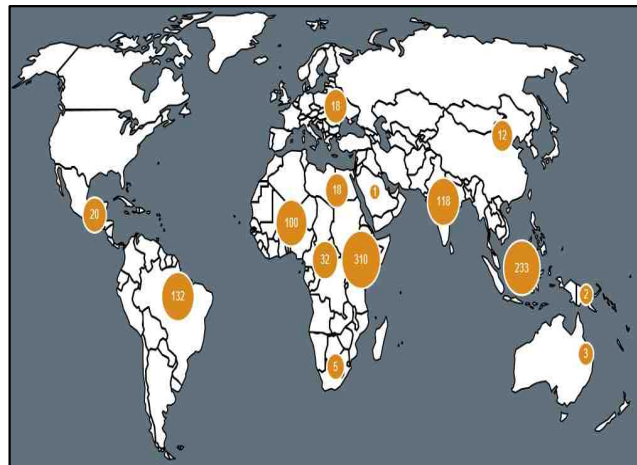


그림 2. 대륙별 토지거래 현황(계약 건수)



자료: Land Matrix Dataset(<http://landportal.info/landmatrix>)을 바탕으로 필자작성.

- 1) 2008년 세계 곡물 파동 이후 가속화된 국내외 정부·기업·개인에 의한 대규모 토지 매입 및 장기임차를 가리키는 용어로, 주로 현지 농업경제 및 현지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는 초국적 상업 자본을 의미함.
- 2) 국제토지연대(ILC), 프랑스 국제농업개발연구센터(CIRAD), 베른대학교 개발·환경연구소(CDE), 독일 세계지역연구소(GIGA), 독일 국제협력유한책임회사(GIZ)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Oxfam, 독일국제협력부(BMZ), 네덜란드 외무부, EU집행위원회, 스위스 개발협력청(SDC)이 지원한 프로젝트로, 2000년~2010년간 거래내용이 확인된 남반구 56개국의 토지매매 사례(1,006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단, 토지거래면적이 200ha 이상). 자세한 내용은 <Transnational Land Deals for Agriculture in the Global South> 참조.
- 3) 우리나라의 전체 농지면적은 약 172만 헥타르(2011년).
- 4) 세계은행은 2008~2009년 장기임대계약을 맺은 전 세계 농지 5,600만 헥타르 가운데 70% 이상이 아프리카 토지라고 앞서 밝힌 바 있음.

표 1. 세계 주요 토지 임대(賃貸)국

| 순위 | 국가 | 면적(ha) |
|----|--------|-----------|
| 1 | 인도네시아 | 9,527,760 |
| 2 | DR콩고 | 8,051,870 |
| 3 | 에티오피아 | 5,345,228 |
| 4 | 필리핀 | 5,182,021 |
| 5 | 말레이시아 | 4,819,483 |
| 6 | 인도 | 4,628,578 |
| 7 | 수단 | 3,923,430 |
| 8 | 브라질 | 3,871,824 |
| 9 | 마다가스카르 | 3,779,741 |
| 10 | 잠비아 | 2,273,413 |

표 2. 아프리카 토지 주요 임차(賃借)국 및 매입국(계약기준)

| 국가 | 주요 투자분야 | 주요 임차대상국 |
|------|----------------|---------------|
| 중국 | 자트로파, 팜유, 사탕수수 | DR콩고, 잠비아 |
| 인도 | 옥수수, 자트로파, 팜유 |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
| 미국 | 옥수수, 자트로파, 팜유 | 수단, 마다가스카르 |
| 이스라엘 | 자트로파, 아주까리 | DR콩고, 에티오피아 |
| UAE | 자트로파, 설탕, 관광업 | 수단, 잠비아 |
| 영국 | 자트로파, 사탕수수, 쌀 | 아프리카 전역 |
| 한국 | 옥수수, 팜유 |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
| 스웨덴 | 사탕수수, 자트로파 | 탄자니아, 모잠비크 |
| 남아공 | 사탕수수, 팜유 | 남부아프리카 중심 |
| 사우디 | 쌀, 옥수수, 곡물 | 에티오피아, 말리 |

자료: Land Matrix Dataset(<http://landportal.info/landmatrix>)을 바탕으로 필자작성.

- 초국적 토지거래에 대한 논쟁은 2008년 세계 곡물 파동 이후 가속화·격화되어 왔으며, 개도국 주민의 삶과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토지수탈이라는 입장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개발의 기회라는 입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개발NGO는 △ 개도국정부와 초국적 자본 간의 불공정 거래 △ 상품작물 위주의 영농활동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 현지주민의 식량권·노동권·거주권 침해 △ 나쁜 일자리 및 도시빈민 양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비난해옴.

- 아프리카의 경우 전체 토지의 90%가 미등록(untitled)지인 관계로 정부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정부가 외국자본과 토지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농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실패함.

- 불공정한 거래의 단적인 예로, 노르웨이의 한 투자자는 연간 \$0.07/ha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약 18만 헥타르의 남수단 토지를 99년간 장기 임차함.

-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초국적 토지거래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 지역고용창출과 △ 인프라 개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 선진기술 도입과 △ 지식공유 차원에서 개도국 농업 및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

- △ 인구증가 △ 국제 식량가격 상승 △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 등으로 말미암아 식량수입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해외 토지 확보 및 식량기지 건설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토지 임차국·매입국은 토지거래 계약 체결 시 현지의 토지제도 및 행정체계 등을 주의 깊게 고려하고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5월 국제토지연합은 빈곤층 토지 접근성 보장 인권원칙인 '티라나 선언'을 제정하였으며, UN FAO는 2012년 5월 11일 '토지수탈 방지 가이드라인'을 채택, 초국적 자본으로부터 개도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자료: the Guardian, BBC, Land Matrix 웹사이트, Reuters 등〉

(전혜린 연구원)